

'진안홍삼' 인삼 분야 전국 최고 무주군, '명품 숲길' 조성 착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서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진안홍삼'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진안군은 20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진안 홍삼제품 공동브랜드인 '진안홍삼'이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MBC와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주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고, 이를 소비자와 업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시상식이다.

선정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국 인삼제품 공동브랜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진안홍삼'이 ▲최초상기도 ▲인지도 ▲브랜드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7개 조사항목에서 충남 금산군 곱홍, 충남 진스류, 영주시 황풍정, 경기 천경삼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진안홍삼'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6번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삼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진안홍삼은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평균해발 400m의 고원지대에서 자란 인삼으로 만들어져 사포닌과 जि네노사이드 성분 함량이 풍부해서 면역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졌으며 최상급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전국유일의 홍삼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홍삼 전문연구기관인 진안홍삼연구소를 설립하여 홍삼의 효능연구 및 제품 개발과 진안홍삼 제품에 대해 품질 인

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홍삼명인이 진안에서 배출됐고, 같은 해 시행된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는 엄격한 품질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진안홍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한 층 높이고 있다.

진안홍삼 연구소는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으로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홍삼가공품에 대한 유해성분 또는 중금속,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 검사 실시로 품질 인증 사전·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올해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은 소비자들에게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꼼꼼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7월까지 오산리·서면마을·현내리 일원 등에 조성사업 추진

무주군이 무주읍 오산리 일원을 비롯한 무주읍 서면마을, 무풍 현내리 일원 등에 숲길조성사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돕고 휴양이 가능한 명품숲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7월까지 숲길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숲길과 등산로 유지관리 전담 인력을 운영 중인 무주군은 오는 7월까지 무주읍 무주읍 오산리 산26-1번지 일대의 숲길(총 연장 0.38km)을 조성한다. 데크로드와 보행매트, 난간 등 안전시설과 전망 데크 등 휴게시설을 마련, 숲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무주읍 서면마을 숲길 조성사업은 총길이 0.9km 구간에 흙 쌓기와 잡목을 제거하고 안내판 및 방향 표지판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무풍면 현내리 산34-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무풍면 숲길 조성 사업은 총길이 2.7km 이르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부목(방부 처리하여 만든 목재) 덮개와 방부목 계단, 팔각 정자를 설치해 친환경적 산림휴양지로 조성한다.

산림복지과 산림휴양팀 이경일 팀장은 "이들 구간들은 경사가 완만해 평소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라며 "이들 구간을 명품 숲길로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산과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산행 및 트레킹 등의 야외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대표 산림 군으로 산림의 자원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숲길 이용에 따른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방문객 안전 위해 사과 꽃 나들이 행사 취소

무주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꽃 나들이 체험 행사를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무풍 사과단지에는 지난해부터 오래된 과원을 갱신하면서 사과 과분양을 추진했으며, 사과와 맛과 품미가 체험객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무주 사과의 명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홀로, 후지 품종 700주 분양이 조기 매진되는 등 체험객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군은 당초 사과 분양자에게 4월 꽃나들이 체험행사, 9월과 10월 홀로와 후지 수확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고심 끝에 사과 꽃나들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으며, 체험객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고품질 사과 재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안전속도 5030' 홍보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20일 진안경찰서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고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군은 진안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진안을 도심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30km로 지정했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문화체육장 우시엽 공익장 신공빈 산업근로장 신영진 애향장 정동수 효열장 신정이

제20회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 5명 선정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는 20일 '진안읍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0회 진안읍민의 장을 맞이해 읍민의 장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위원장 육완문 읍장)에서는 문화체육장 우시엽(67), 공익장 신공빈(73), 산업근로장 신영진(73), 애향장 정동수(57), 효열장 신정이(72)씨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우시엽씨는 남다른 진안사랑으로 진안읍체육회와 사회단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봉사 의욕을 하였고, 청소년 상담소장을 역임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공익장에 선정된 신공빈 씨는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주민화합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함을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에 선정된 신영진 씨는 진안군 명품 농특산물 형성에 기여하였고 마을축제 등을 통해 화합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 친환경농업의 전파와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았다.

애향장에 선정된 정동수 씨는 선후배 및 고향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으로 진안군민의 위상을 드높인 데 대해 인정받았다.

효열장에 선정된 신정이 씨는 지난 40여년간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님을 정성껏 간병하고 봉양하여 타의 귀감이 됐기에 선정됐다.

오는 5월 1일 진안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리는 제20회 진안읍민의 날 및 기념행사는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이장회의, 체육회임원회의, 기관사회단체장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읍민의 날 행사 취소 등을 겪었으나 올해는 읍민 화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읍민의 장 시상식 등 최소한의 기념행사만 진행하기로 정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부인의 참여 최소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미안마 국민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미안마 민주주의의 회복 응원하는 챌린지 동참

황인홍 무주군수가 미안마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응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미안마 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부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열아홉 살 소녀 마칼신(Ma Kyal Sin)의 옷에 새겨져 있던 글귀가 '다 잘 될 거야(Everything will be OK!)였다'며 "다 잘 될 거라는 믿음대로 미안마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눈물, 그리고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서도 황 군수는 미안마 군부의 무차별 살상 행위를 강력히 규

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미안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지난 15일 김주수 의성군수의 자문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던 황인홍 무주군수는 챌린지 바통을 정동순 장흥군수와 서춘수 함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에게 넘겼다.

한편, '미안마 민주주의의 회복 챌린지'는 미안마 군부가 일으킨 비상사태에 맞서고 있는 미안마 국민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진행 중으로 전국에서 국회의원과 시·군 단체장 및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미안마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응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장수군, 코로나19 대응 체육시설 방역 점검

장수군은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차 유행에 대비가 위해 관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체육 팀장 및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10개 체육시설에 대해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금지, 샤워실 등 부

대시설적정인원관리,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및 구령) 금지, 겨투기 등 상대접촉 운동은 가급적 짧게 진행, 공용물품 소독 철저, 상대방 접촉 무도 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관람석 외 구역에 음식섭취가능구역 마련권고, 육성응원금지,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및 사용 최소화 체육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장수군은 관내 체육 시설에 대해 주 2회 주기적으로 방역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식당·카페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펼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